

정보통신기술사 합격 수기

김덕수

정보통신기술사
(스카이라이프 MATV사업팀)

들어가며

최종 합격자 발표한 지 일주일을 보내고 수기를 쓰는 이 순간이 돼서야 합격이 실감납니다. 필자에게 과분한 기회이지만, 글을 쓰면서 지난 3년간의 수험 생활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 글이 공부하시는 다른 분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마다 적합한 공부방법이 있으므로 공부를 결심한 분들은 여러 합격수기를 읽어보고 자기 자신과 적합한 롤 모델을 찾아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보통신기술사를 처음 접한 시기

필자는 1999년 S이동통신사에서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3년간 이동통신 무선 액세스망의 설계업무를 하면서 이동통신 기지국 전파환경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선배님이 기술사 문제를 보면서 “참 어렵네” 하시길래, “아 그것이 기술사 문제인가요?” 하고 물으면서 “기술사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구나” 하면서 처음 접했습니다. 이후 방통융합이 서서히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경력관리와 미래를 위해 두 번째 직장인 S위성방송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때 위성방송 플랫폼을 직접 설계하고 구축하시는 선배 기술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기술사님은 ICT 분야에 대해 통찰력과 사명감을 지니신 분이었으며 이후 국가의 부름을 받아 개성공단 사업단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언젠가는 저런 기술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2008~

High Definition

다채널 HD 방송 시대 개척

2008년
국내 최초 다채널 HD 방송

스마트 PVR 수신기



정보통신기술사 공부 시작 계기

누구나 그렇지만 시작하는 계기가 있는 거 같습니다. 필자도 직장 생활 하면서 결혼 및 육아 등으로 바쁘게 지내면서 간만 보고 있었으나 2013년 말경 주변 동료들이 방송과 통신이 융합화되고 All IP, All Optic 환경으로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게 되면서 필자도 미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매년 시행하는 방송기술 컨퍼런스에 참가할 만한 기술사가 없는 우리 회사의 현실은 나름대로 자존심 있는 엔지니어라 생각한 필자와 같은 선배들에게는 큰 굴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에 술에 만취 후 다음날 집사람이 끓여준 라면을 먹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사람에게 “나 기술사 공부 시작할 테니 3년만 기다려줘”라고 말한 이후 2014년 1월 3일부터 필자의 공부는 시작되었습니다.

주경야독(晝耕夜讀)

‘주경야독’이란 말은 듣기에는 그럴듯한데 실제로 해보면 사람이 할 짓이 아님을 공감하실 분 많으시겠지요. 낮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께서 대부분이시겠지만 전업학생이 아니고서야 온종일 마음 편하게 책에만 몰두할 여건이 되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필자도 교대 근무를 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비번에는 공부하고 여러 모임이나 회사 회식에도 가급적 참석을 줄이고 다람쥐 채 바퀴 돌 듯 공부에만 전념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6개월 만에 합격한다고 집사람에게 설레발을 치며 공부했지만 예상외로 낮은 결과를 받아보면서 부끄러운 자신의 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지나고부터는 공부에도 지치고 무언가 방법을 찾으려고 생각을 정리하고자 주말에는 공부를 하지 않고 운동과 캠핑도 다녔습니다. 필자의 공부는 1월부터 8월 시험까지 공부하고 9월부터 12월까지의 좀 쉬면서 밀린 경조사도 가고 체력도 보강했습니다. 기간으로 치면 2년이 넘어가면서 집사람과 아이에게도 미안한 감도 들고 마지막에는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라 힘들어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4조 3교대 주조종실 근무로 평일에 하루 5시간 이상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이 주효했던 거 같습니다.

기술사시험은 8시간 반 동안 수기로 50페이지 이상을 작성하는 논술시험입니다. 넓은 시험범위와 난이도는 시험장에 들어갈 때마다 끔찍스러운 지옥과도 같은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필기시험은 각 분야의 기술을 거미줄처럼 엮을 수 있어야 하며 엔지니어링 사고체계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또한 면접시험은 30분 동안 3분의

면접관(기술사, 교수님)이 기본이론, 전문지식, 응용능력, 문제해결 능력에 대해서 기술사로서 품위를 검증하므로 실무경력이 최소 10년 이상은 되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공부과정

필자는 기본공부는 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14년 3월에 S학원 심화반에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심화반에 등록하면 기본반 동영상상을 열어주면서 기본기도 다듬는 계기가 되었으나 무언가 2% 부족했습니다. 우선 자료가 부족하고 멘토링 받을 기회가 적었습니다. 8월 첫 시험에서는 46점을 받았습니다. 짧은 모의고사만 몇 번 보고 합격하려는 과욕을 부린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깨닫는 기간이었습니다. 이후 하반기는 차분히 쉬면서 자료를 정리하고 서브노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상문제 100문제를 선정하여 모범답안 없이 2달 반 동안 작성하였고 15년 2월 시험에서 53점을 받았습니다. 역시 마음의 부담감을 떨쳐야 잘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5년 3월에 K학원 파이널반에 등록하였습니다. 도대체 다른 분들은 답안을 어떻게 쓰는 것일까? 항상 궁금하였지만 스터디 그룹을 하지 않아서 남의 답안은 이곳에서 처음 봤습니다. 필자는 교대근무의 특성상 한 달에 4번 중 3번 정도만 겨우 나오므로 다른 분들에게 민폐를 끼칠까봐 스터디는 들지 않고 혼자 공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스터디 그룹 활동이 힘들어도 참여했으면 공부기간이 더 단축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K학원에서는 자료가 넘쳐났습니다. 자율적인 스터디와 PT 결과물을 공유해 주면서 많은 시험자료를 얻어서 추가 서브노트를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15년 8월에는 56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좀 쉬다가 12월 말부터 과년도 10년 치를 한 회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작성해 놓은 200장의 서브노트 3권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답안연습을 많이 하였습니다. 16년 2월 시험 전에 처음으로 학원 실전모의고사에 응시했습니다. 결과는 1등이었지만 실제 시험은 실망스럽게도 전화와 같은 56점을 받았습니다.

뭔가 방법을 달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학원을 안 다녀서 그런가 해서 박종규 기술사의 평일 멘토반을 수강하려 했으나 인원이 적어 폐강되는 아쉬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때 박종규 기술사님이 미안하다며 허경행 기술사님의 서브노트를 “이번에 나온 건데 한번 봐보라”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16년 8월을 목표로 허경행 기술사 서브노트에 단권화하기로 하고 기존 서브노트의 내용을 한 권으로 단권화하려고 노력하며 10년 치 답안 연습을 꾸준



하고 답변을 논리적으로 잘하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험기간이 더 길어지면 체력적으로 한계가 올 것 같아서 4개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여 면접 준비를 하였습니다.

필자는 오전에만 계속 면접시험을 응시했고 당일에는 면접용 서버노트와 단권화 필기 서버노트 만 가볍게 여러 번 보았습니다. 면접도 운이 작용하는 것이 오전에 재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오후에는 첫 시험 보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여 치열한 경쟁 끝에 2차 면접시험에서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모든 문제를 정확히 다 알 수 없으므로 면접도 당연히 전략이 필요합니다. 강점은 최대한 부각하고 잘 모르는 문제는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면접관이 대면으로 평가하므로 면접관에게 감동을 주는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며

제가 정보통신기술사를 공부하면서 믿었던 신념입니다.

- 강점에 집중하라
-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지식을 체계화하라
- 답안프레임을 차별화하고 현장적용을 생각하라
- 정답이 없는 엔지니어링 문제에 친숙하라
- 글씨를 가독성 있게 잘 쓰고 빠르게 써라
-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끊임없이 연구하라

학습참조사이트

- 전자통신연구소(ETRI) 기술동향분석보고서
- IT Find 주간기술동향
- www.ktword.co.kr
- TTA 기술보고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지막으로 같이 공부했던 모든 분들과 바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면접시험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 기술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까지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도 꾸준히 노력하시면 준비하시는 시험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족한 수기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히 하였습니다. 16년 8월 시험 결과는 또다시 56점을 받았습니다.

3번 연속 56점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는 합격하기 힘들겠다 생각하고 답안의 차별화에 강점을 두기로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개요를 풍부히 하고 결론에 주장을 확실히 하고자 답안 프레임 바꾸어 꾸준히 10년 치 문제를 풀고 단권화 서버노트도 꾸준히 반복했습니다. 17년 2월 실전 모의고사는 편하게 시험을 보았고 4등을 했습니다. 이후 실제 시험에서도 서두름 없이 편하게 시험을 보았습니다. 다른 시험에서는 3교시가 끝나면 진이 다 빠지고 목이 쉬는 등 아주 힘이 들었으나 이때는 편안하게 매 교시 답안을 작성하고 검토까지 하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연습한 답안 프레임으로 일관성 있게 작성하였으며 떨어져도 좋다는 마음으로 기술사다운 보고서를 작성하듯이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결과는 1교시 64, 2교시 58, 3교시 60, 4교시 61점을 맞았습니다. 평균 61점으로 합격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합격을 확인하고 뒤흔 듯이 기뻐했습니다. 먼저 집사람에게 합격 소식을 알리고 부모님께 합격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면접시험 준비과정

필기시험 합격 후 마음을 차분하게 가다듬고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7시에서 9시까지 혼자 회의실에서 문답하는 식으로 2주 정도 준비하고 1차 면접 시험을 보았으나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1차 면접에서 한 번에 합격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동기 기술사 13명 중 4명만이 1차 면접에 합격하고 9명이 재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2차 면접시험 준비는 면접 스터디 모임을 소개받아 매주 토요일 평촌에서 처음으로 6명이 스터디를 시작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6시간 이상 모의 면접을 하면서 면접시험에서도 많은 공부가 필요